

홀로된 老人의 再婚觀 연구

A Study of the Single Elderly's View on Remarriage

한양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金 恩 鎮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徐 炳 淑

상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학과

부교수 趙 殷 卿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Kim, Eun Jin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Seo, Byong Sook

Dept. of Home Economics Sangji University

Associate Prof. : Cho, Eun Kyoung

〈 목 차 〉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 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understanding the single elderly's view on remarriage and finding factors that affect the remarriage, which should provide basic data for the future research on the single elderly's view on remarriage.

251 single elderly men and women(divorced or widowed) were asked to answer the survey questionnaire which also involved individual interviews.

A brief summary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The elderly's view on remarriage significantly varies according to the factors like sex, age and the number of children of the elderly, cause of being single, degree of loneliness, need for remarriage, degree of satisfaction out of previous marriage, prior remarriage experien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ut of previous marriage is high when they maintain cordial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and the cause of breakup of marriage is death, and the degree of loneliness is high, and the period of the previous marriage is long while the period of being single afterwards is short.

Women's expectation level of remarriage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most variables. But, that of men's i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in most variables.

The satisfaction of the first marriage and the expectation level of remarriage are in positive correlation.

I. 서 론

우리 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한 급속한 경제성장 과 산업화로 인하여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핵가족 화 및 가치체계의 변화는 신구 양세대의 가치관에 극심한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 양 및 보건수준의 향상은 평균수명을 연장시켰고, 사 망률과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근로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게 되었다. 즉 노인 부양, 노인 건강, 사망, 홀로됨, 노후 적응, 자녀와의 교류, 노인 복지 등 과거 사회에서는 제기조차 되 지 않았던 수많은 노인 문제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 과 전통적인 관습, 그리고 도덕적인 관념에서 여성 의 재혼과 노인의 재혼은 못마땅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에 홀로된 노인의 이성문제 및 노인의 재 혼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한 분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홀로된 노인의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으며,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1990년도 통계 청 조사에 의하면 50세 이상 인구 중 유배우는 총인 구 7,145,000명 중 5,059,000명이고 나머지 2,086,000 명-60세 이상 1,521,000명-은 노후를 홀로 살아가 는 노인들이다. 이 중 재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연령인 여자 50세부터 65세 까지는 810,000명이고, 남자 60세부터 75세 까지는 145,000명이다. 그런데, 어떤 형태이든지 이성교제를 원하는 무배우 노인이 64.6%에 달해(이윤숙,1990), 홀로된 노인의 결혼 문 제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연 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홀로 사는 노인들 의 재혼의 필요성은 사회 발달과 더불어 일어난 재 혼관의 변화 뿐만 아니라 수명의 연장, 생활의 편리 성 및 여가시간 증가,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경로 의식의 쇠락, 가족 기능의 약화 등의 이유로 옛날 보 다 오늘날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재혼이라는 것은 고독한 세계에 서의 탈출을 뜻하는 것이며, 잊어버렸던 인간관계의 회복이기도 하다. 독신 노인이 자기 아닌 또 하나의 고독한 노인과 결혼하여 상호 이해하고 의존하며 제 3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바람직하고 의 미있는 일이라 하겠다(박재간,1984).

Kinsey 보고서*를 비롯하여 최근 국내외의 연구 보고를 통하면 노인이 되어도 성욕구는 나타나며 청 년기와 동일하지는 않아도 지속적이라는 보고가 있 다(이윤숙,1990; 장인협,1987). 여기에 노혼의 성립 조 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 의 부부 생활은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욕구보다는 상 호 이해와 상부상조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 는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부부 생활은 인생살이의 슬픔과 기쁨의 여러 경험을 지낸 남녀가 서로 위로

* Kinsey et al., 1948 : Kinsey보고서에 의하면 나이가 많아져도 많은 남성들은 성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60세에 98%, 70세에 70%, 70세가 넘으면 미약한 성적 활동을 보였다.

하고 과거를 공동으로 회고하여 마음의 안정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김성순, 1984).

노인층의 경제 활동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노인층이 증가하여 분가 욕구가 노인파 성인자녀 쌍방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재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재혼은 젊은 사람에 비하여 매우 어렵고 보다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생활의 질적인 향상이 재혼으로 이루어 진다고는 할 수 없으나 노인이나 가족들에게 노인의 재혼에 대한 관심과 재혼관에 대한 정보를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삶을 노인들에게 부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재혼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조사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혼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전혼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혼희망도의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4〉 전혼만족도와 재혼희망도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홀로된 노인의 문제

Goldberg 등의 연구(1988)에서 21.7%의 홀로된 노인들이 사별 후 6개월 이내에 정서적 문제로 인한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실제로 무배우의 충격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정신 질환, 자살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Riley & Foner, 1968; 서병숙, 1991),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보다 의존적이고 친밀한 상태

의 노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서병숙, 1991). Lopata의 연구(1973)에서 대상자의 반수 정도는 1년 미만에 비통함이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표본의 20% 정도는 1년 후에도 사별의 슬픔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Breckerridge, 1986; Brubaker, 1990에서 재인용), 배우자의 사망은 일상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Gubrium, 1974) 홀로된 노인들은 건강이 극적으로 악화 되고(Ferraro, 1985; Brubaker, 1990에서 재인용) 우울함의 징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1994)은 배우자를 통해 얻은 욕구나 만족도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통해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 상실은 노인의 사기나 생활 만족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게다가 노인들은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본인의 은퇴시, 역할과 관계를 상실하게 되며, 육체적 이동력이 제한됨으로써 대인접촉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친족관계의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또한 홀로된 노인들은 자신의 정체감(identity)이 흔들리고 보다 빠른 죽음을 예견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Riley & Foner, 1968). 결국은 배우자로서 지냈던 역할들이 이제는 무용지물이고, 대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인 배우자는 상실된 것이다.

이러한 홀로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은 젊은이보다 노인의 경우 훨씬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됨과 사기 저하는 상관관계에 있으며, 사기 저하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David Chiriboga, 1982). 특히 늙고 가난한 홀로된 노인은 외로움/우울, 불행의 두가지 특별한 부정적 감정을 훨씬 자주 호소하였다(Harvey & Bahr, 1974). Scott(1985; Brubaker, 1990에서 재인용)는 이 “사기(morale)”가 특히 재정적 상황과 관련되며 성별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홀로된 후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젊은이보다 노인들이 불만족해 하는 상태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친구가 적거나, 자녀와 가깝지 못한 노인들은 배우자 사별후 큰 정서적 문제의 위기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2. 재혼 적응 요인

Moss & Moss(1980)는 노인들이 재혼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사망한 배우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노인은 “첫번째 결혼의 프리즘”을 통해 새로운 결혼을 보았다. 즉, 전혼의 친근한 관계가 새로운 결혼 관계에 적응하는 데 중요하다.

Mckain은(1972) 노혼부부 100쌍에 대하여 성공적인 재혼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커플이 새 배우자를 홀로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이었다. 새 배우자는 전 배우자와 매우 유사한 사람이었다고, 전혼이 만족스러웠을 경우 재혼도 더 좋았다고 한다. 그의 연구에서 75%의 응답자가 “성공적”이라고 답하였고, 6%만이 실패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재혼의 성공 비결은 ① 아내가 14세 이내의 연하일 때 ② 많은 구혼 행동이 있었을 때 ③ 상호 관심사가 있을 때 ④ 주거문제 같은 물질적 목표보다는 사랑과 동료감이 앞설 때 ⑤ 쌍방이 생활 만족도가 높았을 때 ⑥ 가족-특히 자녀-과의 관계가 좋고, 자녀가 재혼을 승인했을 때 ⑦ 소득이 충분할 때 등이다.

Vinick의 연구(1978)에서 재혼한 노인 응답자의 80% 이상이 재혼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성은 내적 상태-과거에 가졌던 재혼에 대한 태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가 결혼 만족도와 상관 있었으나, 여성은 반대로 외적 상태-현재 생활 상황; 동료 집단 의 긍정적 태도, 적절한 주거환경, 운택한 재정 상태-가 관계 있었다고 한다.

또, 부부간의 합의와 의사결정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재혼 관계의 질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보다는 개개인의 성격과 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회적 지원이 재혼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Ganong, 1989). 한편, 재혼 만족도도 초혼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고 한다(Guisinger et al., 1989).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볼 때 외국의 경우 많은 재혼 노인들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노인 재혼을 홀로된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한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도구의 작성

1) 전혼 만족도

전혼만족도의 측정은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을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박찬미(1985)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전혼 만족도의 영역은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내용은 전혼 당시 느꼈던 만족감에 대하여 ①신뢰감 ②애정·관심 ③성생활 ④대화 ⑤전배우자와 다시 결혼 희망 ⑥전반적인 전혼의 결혼 생활 만족에 대한 것이었으며, “매우만족”에 5점, “매우 불만족”에 1점을 주는 방식을 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재혼희망도

재혼희망도의 문항은 노인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재혼을 희망하는 이유, 동기 등과 홀로된 후 겪는 개인적·사회적 문제점들을 참고로 하였으며, 실제로 노인들과의 사전 면담을 기초로 연구자가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재혼희망도는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재혼한다”에 5점, “재혼하지 않는다”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재혼을 수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혼희망도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4$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홀로된 남녀 노인이다. 예비조사는 1995년 6월 29일 부터 7월 15일 까지 50명의 홀로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

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7월 30일 부터 9월 20일 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외곽노인 친목회, 노인정, 복지관, 호별 방문 등을 통해 조사자 자신 및 가정관리학을 전공한 훈련된 면접원, 그리고 노인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이 홀로된 노인을 직접 면접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총 270부 중 19부를 제외한 총 25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AS PC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혼만족도 및 재혼희망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산출하였으며, 다중비교 검증방법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혼관

<표 1-1>에서 보듯이 재혼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재혼관 중 재혼의 동기, 적당한 연령 차이, 교제기간의 세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재혼에 반대하는 이유, 배우자 선택 조건, 재혼의 결정주체, 희망 주거형태, 재혼시 가장 걱정되는 점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

재혼의 동기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외로워서'(45%)라는 동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동반자가 필요해서'(35%)의 비중이 가장 커서 남녀차이를 보였다(P<.01). 이는 남성의 경우 거의 모든 일

상 생활에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왔고 여성에 비하여 사회적 활동이 많기 때문에 '동반자'라는 의미에서 배우자의 빈자리를 여성노인 보다 더욱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여성은 배우자 상실 그 자체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령차는 10세 이상의 큰 차이를 원하는 남성 노인이 18%에 달하는 반면 여성 노인은 2%에 불과하여 남성이 더 많은 연령 차이를 원하고 있었다(P<.001). 이는 조기동(1993)과 Glick(1986)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홀로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

<표 1-1> 성별에 따른 재혼관

재혼관	조사대상자의 특성	성 별	
		남(%)	여(%)
재혼의 동기	외로워서	24(33.3)	81(45.3)
	동반자가 필요해서	25(34.7)	52(29.1)
	보호가 필요해서	2(2.8)	11(6.2)
	사랑하기 때문에	11(15.3)	12(6.7)
	경제적 어려움으로	1(1.4)	14(7.8)
	성적만족을 위해	4(5.6)	0(0.0)
	자녀·친지의 권유로	2(2.8)	4(2.2)
	독립가정을 이루려고	3(4.2)	5(2.8)
	계	72(100)	179(100)
		χ^2	21.39**
적당한 연령차이	0-2세	12(16.7)	40(22.4)
	3-5세	28(38.9)	100(55.9)
	6-10세	19(26.4)	35(20.0)
	10세 이상	13(18.1)	4(2.2)
	T값	3.96***	
적당한 교제기간	0-6개월	44(61.1)	80(44.7)
	6개월-1년	18(25.0)	70(39.1)
	1년이상	10(13.9)	29(16.2)
	T값	-2.11*	

*P<.05 **P<.01 ***P<.001

보다 갑절이상이나 많기 때문에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자신보다 젊은 상대를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교제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짧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P<.05). 남성 노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보려는 비율이 60%를 넘었으나 여성 노인은 6개월~1년 기간이 39%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남성이 재혼에 있어서 여성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수

〈표 1-2〉와 같이 자녀수에 따라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반대가 두려워서’와 ‘사회·관습상 옳지 못하여서’의 사유로 재혼을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다(P<.01). 자녀의 수가 많을 때에는 자녀 자체의 반대로 더 많겠지만, 아울러 많은 자녀에도 불구하고 재혼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자녀수에 따른 재혼관

재혼관		조사대상자의 특성		
		자녀 수		
		0-1명	2-3명	4명이상
재혼 반대 이유	나이가 많아서	26(44.8)	48(39.0)	36(51.4)
	건강이 나빠서	10(17.2)	17(13.8)	12(17.1)
	자녀의 반대가 두려워서	4(6.9)	21(17.1)	7(10.0)
	사회관습적으로 옳지않아서	11(18.9)	32(26.0)	12(17.1)
	기타	7(12.1)	5(4.1)	3(4.3)
	χ^2		33.39**	

*P<.05 **P<.01 ***P<.001

3) 홀로된 사유

〈표 1-3〉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자의 홀로된 사유에 따라 재혼후 걱정되는 점에 차이를 보였다. 사별한 노인의 경우 재혼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의붓 부모-자녀 관계”였으나, 이혼한 노인의 경우에는 “새

로운 부부관계 적응”으로 나타났다(P<.05). 이혼한 사

〈표 1-3〉 홀로된 사유에 따른 재혼관

재혼관		조사대상자의 특성		
		홀로된 사유		
		사 별	이 혼	기 타
재혼시 가장 걱정되는 점	의붓부모·자녀관계	82(44.1)	11(27.5)	8(32.0)
	새로운 부부관계 적응	84(45.2)	28(70.0)	12(48.0)
	사회의 눈초리	20(10.7)	1(2.5)	5(20.0)
	χ^2	11.50*		

*P<.05 **P<.01 ***P<.001

람은 아무리 이혼의 사유가 많더라도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사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과는 달리, 자녀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혼을 할 때에도 의붓부모-자녀 관계보다는 새로운 부부관계에 적응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4) 재혼경험유무

〈표 1-4〉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재혼경험 유무가 재혼시 교제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재

〈표 1-4〉 재혼 경험에 따른 재혼관

재혼관		조사대상자의 특성	
		재혼경험	
		있 다	없 다
적당한 교제기간	0-6개월	18(81.8)	106(46.3)
	6개월-1년	3(13.6)	85(37.1)
	1년이상	1(4.6)	38(37.1)
	T값	-3.15**	

*P<.05 **P<.01 ***P<.001

혼경험이 있을 때 경험이 없을 때 보다 교제기간을 짧게 잡고 있었다. 이는 일단 재혼을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교제의 신비감도 사라지고 어느 정도 상대방 파악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시각이 생

기며, 상대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결혼지향적이 되어 빨리 배우자를 구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5) 외로움의 정도 · 재혼의 필요성

〈표 1-5/6〉처럼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와 재혼의 필요성도 교제기간에 차이를 가져왔다.

〈표 1-5〉 외로움의 정도에 따른 재혼관

재혼관		조사대상자의 특성	외로움의 정도		
			외롭다	보통	외롭지않다
재혼의 동기	외로워서	71(50.7)	23(35.9)	11(23.4)	
	동반자가 필요해서	37(26.4)	21(32.8)	19(40.4)	
	보호가 필요해서	7(5.0)	5(7.8)	1(2.1)	
	사랑하기 때문에	10(7.1)	6(9.4)	7(14.9)	
	경제적인 어려움	8(5.7)	5(7.8)	2(4.2)	
	성적만족을 위하여	2(1.4)	0	2(4.2)	
	자녀 · 친지의 권유	1(0.7)	2(3.1)	3(6.4)	
	독립가정을 이루려	4(2.9)	2(3.1)	2(4.2)	
		χ^2	50.45**		
적당한 교제기간	0-6개월	80(81.6)	27(42.2)	17(36.2)	
	6개월-1년	16(16.3)	26(40.6)	20(42.5)	
	1년이상	2(2.0)	11(17.2)	10(21.3)	
	F비	6.60***			

*P<.05 **P<.01 ***P<.001

〈표 1-6〉 재혼의 필요성에 따른 재혼관

재혼관		조사대상자 특성	재혼의 필요성			
			꼭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필요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적당한 교제기간	0-6개월	43(62.3)	54(50.0)	12(38.7)	15(34.9)	
	6개월-1년	22(31.9)	37(34.3)	14(45.2)	15(34.9)	
	1년이상	4(5.8)	17(15.7)	5(16.1)	13(30.2)	
	F비	5.60*				

*P<.05 **P<.01 ***P<.001

재혼의 필요성이 높을 때(P<.05)에나 외로움의 정도가 클수록(P<.001) 교제기간을 짧게 잡고 빨리 결혼에 이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로움이 심할수록 재혼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재혼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교제보다는 결혼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보겠다.

6) 전혼 만족도

〈표 1-7〉과 같이 전혼만족도가 높을 때에도 교제기간을 짧게 생각하였다(P<.01). 전혼에 만족하면 그만큼 결혼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재혼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사료된다. 전혼만족도는

〈표 1-7〉 전혼만족도에 따른 재혼관

재혼관		조사대상자의 특성	전혼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적당한 교제기간	0-6개월	26(47.3)	47(58.8)	51(42.3)	
	6개월-1년	15(27.3)	19(23.7)	54(48.2)	
	1년이상	14(25.4)	14(17.5)	11(9.5)	
	χ^2	24.43**			

*P<.05 **P<.01 ***P<.001

그밖에 재혼의 동기, 반대 이유, 배우자 선택기준, 재혼의 결정주체, 적당한 연령차, 희망주거형태, 걱정되는 점 등의 재혼관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노인의 전혼만족도

노인의 전혼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조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1).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P<.001)와 사별한 경우(P<.001), 전혼기간이 길고(P<.05), 홀로된 기간이 짧을 때(P<.05)로 나타났다.

3. 노인의 재혼희망도

〈표 3-1〉에서 보듯이 여성 노인의 경우 재혼경험

〈표 2-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혼만족도

사회인구학적 변인	전혼만족도		F비	Scheffe	
	M	SD			
성별	남	20.8	6.5	-0.04	
	여	20.7	6.2		
연령	50-59세	20.7	6.4	0.02	
	60-69세	20.8	6.7		
	70세이상	20.6	4.2		
자녀와의 관계	좋다	23.5	6.9	6.1***	
	보통이다	20.0	7.9		
	나쁘다	17.5	9.3		
홀로된 이유	사별	22.0	5.5	13.4***	A B B B
	이혼	17.0	6.6		
	기타	18.0	8.4		
외로움의 정도	외롭다	21.5	6.2	3.1*	
	보통	20.0	6.3		
	외롭지않다	19.8	6.7		
전혼기간	20년미만	19.9	8.2	4.1*	
	21-40년	22.7	7.3		
	41년이상	22.8	6.3		
홀로된 기간	10년미만	22.8	7.6	4.0*	
	11-20년	20.3	8.0		
	21년이상	19.6	6.6		

*P<.05 **P<.01 ***P<.001

유무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있어서 재혼희망도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본인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홀로 살거나 미혼자녀와 동거할수록, 사별보다는 이혼의 경우, 홀로된 시기가 이를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심할수록, 전혼기간이 짧을수록, 교제상태가 있을 때 재혼희망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노인의 경우 홀로된 사유와 재혼 경험, 교제상태 유무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전혼만족도와 재혼희망도간의 상관관계

홀로된 노인의 전혼만족도와 재혼희망도간의 관계를 보면, 〈표 4-1〉과 같이 전체 전혼만족도와 전체 재혼희망도간에 미미한 상관관계($r=.225, P<.001$)가 나타났다. 전혼만족도의 하위영역은 전 영역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중 배우자와의 대화가 재혼희망도와 가장 상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31, P<.001$). 배우자와의 대화가 결혼만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전 배우자와의 대화가 만족스러웠을 경우 홀로되고 난 후 재혼희망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혼의 친밀한 관계가 재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Mckain(1969), Moss & Moss(1980)의 연구와 일치한다.

V. 결론 및 제언

노인들은 노년 후기가 길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의존적인 존재로 변화한다. 특히, 배우자의 상실과 자녀들과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과거와 같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노인문제 중의 하나로서, 이제까지 간과해오던 노인의 재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노인의 재혼 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을 규명하여 노인의 재혼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의 재혼관은 성별, 연령, 자녀수, 홀로된 사유, 외로움의 정도, 재혼의 필요성, 전혼만족도, 재혼경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전혼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홀로된 사유가 사별이고, 외로움의 정도가 높고, 전혼기간이 길고, 홀로된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혼희망도

조사대상자의 특성		재혼희망도	M	SD	F비/T값	Scheffe
성별	남		39.6	10.9	1.02	
	여		38.0	11.3		
연령	50-59세		40.2	9.6	18.63***	A
	60-69세		39.3	11.3		A
	70세이상		26.4	11.2		A B
학력	국졸이하		31.1	13.1	9.2***	B
	중·고졸		39.3	10.4		A
	전문대졸이상		40.3	10.6		A A
건강상태	건강하다		40.4	10.4	4.68**	A
	보통		36.7	11.5		A B
	좋지 않다		34.5	13.1		A B B
본인의 경제상태	충분하다		39.4	10.7	4.04*	A
	보조가 필요하다		38.4	10.8		A
	전적으로 의존		31.7	14.6		A B
자녀수	0-1명		41.6	11.2	3.23*	A
	2-3명		38.3	10.7		A B
	4명이상		36.2	11.8		A B B
자녀와의 동거	혼자 산다		39.5	11.6	2.53*	
	만아들부부		33.9	12.7		
	딸부부와 동거		31.9	15.1		
	미혼자녀와 동거		40.3	8.5		
	기타아들부부		38.0	9.9		
홀로된 이유	사별		42.8	11.5	3.51*	
	이혼		37.6	12.3		
	기타		40.9	9.4		
홀로된 시기	30대		40.9	9.4	3.06*	
	40대		40.3	10.0		
	50대		38.8	12.1		
	60대이상		34.7	10.9		
재혼경험	있다		43.9	9.1	2.38*	
	없다		38.0	11.3		
외로움의 정도	외롭다		40.9	9.2	9.80***	A
	보통		37.0	11.7		A B
	외롭지 않다		33.1	13.7		A B B
전혼기간	20년미만		40.3	10.3	3.35***	A
	21-40년		38.3	11.3		A B
	41년 이상		33.9	12.3		A B B
교제상대	있다		45.7	6.9	5.90***	
	없다		36.4	11.4		

* P<.05 **P<.01 ***P<.001

〈표 4-1〉 전혼만족도와 재혼희망도간의 상관관계

	S	S1	S2	S3	S4	S5	R
총체적인 전혼만족도(S)	1.000	0.800	***	***	***	***	***
배우자로부터 받았던 신뢰(S1)	1.000	0.709	0.503	0.571	0.618	0.159	*
배우자로부터 받았던 애정·관심(S2)	1.000	0.635	0.652	0.624	0.201		
배우자와의 성생활(S3)	1.000	0.616	0.624	0.192			
배우자와의 대화(S4)	1.000	0.712	0.231				
다시 태어나서 전배우자와 결혼한다면(S5)	1.000	0.172					**
총체적인 재혼희망도(R)							1.00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혼희망도의 성별 차이에 있어서 여성노인은 거의 전 변인에 따라 재혼희망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남성노인은 거의 전 변인에 있어서 재혼희망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홀로된 노인의 전혼만족도와 재혼희망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전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재혼 태도를, 전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재혼태도를 보였다. 특히, 전혼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전 배우자와의 대화 영역은 재혼희망도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들이 많은 외로움을 안고 있고, 남녀간에 재혼 희망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보아 무배우 노인의 재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인들이 재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혼 생활이 원만하게 적응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재혼은 초혼보다도 더 한층 적응이 곤란

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맺어지는 경우에는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재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초혼 이상으로 결혼의 안정에 대한 부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재혼의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들(특히 자녀)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한편, 재혼을 하지 않는 노인에 대해서는 가족과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성순 (1985), 『노인복지론』, 서울 : 이우 출판사
- 2) 김태현 (1994), 『노인학』, 서울 : 교문사
- 3) 박재간 (1979),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 이우 출판사
 _____ (1980), 『노인 교과서』, 서울
- 4) 서병숙 (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1), 『노인 연구』, 서울 : 교문사
 _____, 김은진(1996), “홀로된 여성노인의 재혼 태도연구”, 노년학 회지 16(2), 53-66
- 5) 이윤숙 (1990), “노인과 성”, 노인문제 논문논설집, 238-256
- 6) 임춘희 (1994), “재혼가족 연구의 시각과 연구 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2), 93-108
- 7) 장인협, 최성재 (1987), 『노인 복지학』,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8) 조기동 (1993), “혼자 사는 노인과 재혼”, 한국 노년학회지, 13(2), 153-162
- 9) 한국인구보건사회연구원 (1994),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의 정책 과제
- 10) Brubaker, T.H.(1990), “Families in Later Lif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59-981
- 11) Coleman, M., Ganong, L.H. (1990),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1980”,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25-940
- 12) Goldberg, E.L., Comstock, G.W. & Harlow, S.D.

- (1988), "Emotional Problems and Widowhood", J. of Gerontology 43, 206-208
- 13) Gubrium, T.F. (1974), "Marital Desolation and the Education of Everyday Life in Old A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107-113
- 14) Harvey, C.D. & Bahr, H.M. (1974), "Widowhood, Morale, and Affilia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97-106
- 15) Kohen, J.A. (1983), "Old but Not Alone", Gerontologist, 23, 57-63
- 16) Kurdek, L.A. (1989),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First -Married and Remarrie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047-1052
- 17) Lopata, H.Z. (1973), Widowhood in an American City : Cambridge MA, Schenkman
- 18) Mckain, W.C. (1972), "A New Look at Older Marriages", The Family Coordinator, 21, 61-69
- 19) Moss, M. & Moss, S. (1980), "The Image of the Deceased Spouse in Remarriage of Elderly Widow", J.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 59-70
- 20) Spanier, G.B. & Glick, P.C. (1980), "Paths to Remarriage", J. of Divorce, 3, 283-298
- 21) Vinick, B.H. (1978), "Remarriage in Old Age", The Family Coordinator, 27, 359-363